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433-441,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433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은영[1], 윤지영[2*], 박신영[1]
[1]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Factors influencing the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 during online lectures

Eun-Young Choi[1], Ji-Yeong Yun[2*], Shin-Young Park[1]
[1]Professor, Colleage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2]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Jesu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 작성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딴짓은 흥미도(r=-17, p=.003), 이해도(r=-19, p=.001), 필요도(r=-12, p=.031), 학습동기(r=-12, p=.046), 자기조절효능감(r=-11, p=.040), 학습자신감(r=-14, p=.017), 강의만족도(r=-22, p<.001), 강의몰입(r=-24,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습자신감(β= -.20), 토론 및 발표선호정도(β= .19), 강의몰입(β= -.15), 강의만족도(β= -.15)이 딴짓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9.9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0.6%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있어 간호대학생의 딴짓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온라인 수업, 딴짓, 학습자신감, 강의몰입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s during online lectures. The study subjects were 304 nursing students in three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20 and 30, 2020, using by completing structured self 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6.0 program. In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other behaviors, interest(r=-17, p<.01), understanding(r=-19, p<.01), needs(r=-12, p<.05), learning motivation(r=-12, p<.05), self-regulation efficacy(r=-11, p<.05), learning confidence(r=-14, p<.05), lecture satisfaction(r=-22, p<.01), lecture flow(r=-24, p<.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earning confidence, prefer to discuss & present (β=.19), lecture flow(β=-.15), lecture satisfaction(β=-.1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ed 10.6% of variance of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s during online lectures. Thus, we suggest to develop that teaching methods and programs to reduce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s during online lectur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Online lectures, Other behaviors, Learning confidence, Lecture flow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paper publish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Ji-Yeong Yun(yunjiyeong0221@gmail.com)
Received August 1, 2020 Revised September 10,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서론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대면교육의 방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수업을 통해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개학을 통해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1].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급격하게 도입된 온라인 수업으로의 범 사회적인 변화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학습 환경을 융통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2].

간호교육의 목표는 전문적인 실무기술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3]. 간호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간호인을 양성하기 위해 각 대학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교육의 중심인 간호대학생 역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4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동시에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어야 한다는 긴장감, 졸업 시 간호사면허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등 여러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다[4]. 최근 학부제 실시 등으로 인해 졸업 시 이수해야 할 전공 학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관광 및 의료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어, 간호학과의 경우, 졸업 시 이수해야 할 전공교과목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5], 늘어난 전공 교과목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로 직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수업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동시적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수업, 비동시적 온라인 강의의 컨텐츠와 원격 토의 등의 활동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제수행 중심 수업 외에도 환경 및 교수자의 자질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1].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방법 중 비동시적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가 동영상 강의를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교수학습방법이다[6]. 이러한 교수학습법은 교수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에게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하며, 필요 시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동안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자율성은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7]. 비동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자와 학습자간 즉각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사전제작된 온라인 수업을 틀어만 놓고 집중하지 않으면서 게임이나, 유튜브, 문자 보내기 등 학습과 관련 없는 또 다른 행동, 즉, '딴짓'을 하여도 교수자는 즉각적으로 파악 할 수 없다[8]. 또한 대면 강의에 비해 교수자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저하된 경우에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7].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동안 자기통제의 학습태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 간 수업격차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달성 및 학습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9].

최근에는 대학생의 수업만족도와 학습태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10],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11] 및 원격으로 학습하는 대학생의 몰입수준과 학습태도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연구[12]를 통해 딴짓 등의 학습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교수학습법 및 온라인학습의 효과나 만족도, 선행요인 등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3,14]. 그러나 다중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이 온라인수업을 수강하는 동안의 학습태도, 주의집중정도 및 딴짓의 영향요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는 동안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의 언택팅(Untacting)교육에 대처하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수업 시 일어나는 딴짓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딴짓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2]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강의만족도 및 강의몰입을 파악한다.
3]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와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강의만족도, 강의몰입과 딴짓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딴짓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광역시, J남도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전 동의서를 통해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응답 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d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했을 때 임의추정 예측변수의 수를 최대 25개 정도로 감안한 경우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242명 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31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충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하여 최종 304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딴짓

딴짓이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학습과 관련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8] 간호대학생의 딴짓을 측정하기 위해 김수연(2015)이 개발한 4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각 딴짓의 각 유형에 대해 '전혀하지 않는다' 1점에서 '계속해서 한다'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딴짓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과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였다.

2.3.2 학습동기

학습동기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을 유발하고 학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율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된 1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6].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Jang과 Park[16] 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으로[17] 본 연구에서 Kim과 Park[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3개의 하부영역은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어려운 과제 선호' 10문항,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인 '학습자신감' 8문항,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로 구성된 '자기조절효능감'10문항의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Kim과 Park[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2이었다.

2.3.4 강의만족도

강의만족도란 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하며[19],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강의와 교수자에 대한 만족에 대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Shin과 Kim[8]이 수정 보완한 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의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과 Kim[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2.3.5 강의몰입

몰입이란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은 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20], 본 연구에서 강의몰입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 정도를 의미한다[8]. 강의몰입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몰입도를 파악하기 위해 Shin과 Kim[8]이 학습상황에 맞는 문항을 추출한 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의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과 Kim[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였다.

2.4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 전 연구수행 및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위해 연구자가 4년제 3개 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조사하고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한 뒤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과 혜택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응답 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을 중단할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과 서명을 해야 하는 동의서를 대신하여 무기명으로 동의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작성시간은 15분~20분이 소요되었으며, 작성된 모든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딴짓 정도,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강의만족도 및 강의몰입은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딴짓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 평균비교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딴짓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딴짓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0.3%(244명)으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대학생의 특성상 20대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3.55±6.53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년은 4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전공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96.4%). 선호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강의라고 응답한 학생이 67.1%(20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사례기반학습(54.1%), 문제중심학습(10.2%)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토론 및 발표 선호 에 대한 질의에는 그저그렇다(51.3%), 좋아한다(19.1%), 싫어한다(29.6%)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면강의 및 온라인 수업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의 강의 방법 모두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딴짓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토론 및 발표 선호도에 따라 딴짓 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F=3.65, p=.027), 사후분석 결과, '좋아한다',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싫어한다' 라고 대답한 대상자에 비해 딴짓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도 딴짓 정도에 차이를 보였으며(F=6.99, p<.001), 사후분석결과, '온라인 수업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딴짓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별, 연령, 학년, 전공만족도, 선호하는 교수학습법, 대면 강의의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도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참고).

Table 1. Differences in Other behavi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nursing students

(N=3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 F	*p*
Gender	Men	60(19.7)	1.52±0.43	1.78	.151
	Women	244(80.3)	3.83±0.43		
Age(year) (average 23.55± 6.53)	29≥	274(90.1)	1.44±0.53	0.48	.630
	30≤	30(9.9)	1.39±0.49		
grade	Junior Freshman	91(29.9)	1.39±0.46	1.08	.359
	Senior Freshman	47(15.5)	1.40±0.47		
	Junior Sophister	64(21.1)	1.40±0.44		
	Senior Sophister	102(33.6)	1.51±0.65		
Major Subject Satisfaction Level	Satisfaction	293(96.4)	1.42±0.53	-1.15	.253
	dissatisfaction	11(3.6)	1.61±0.55		
Character	Positive	118(38.8)	1.47±0.58	1.00	.317
	Passive	186(61.2)	1.41±0.49		
perfer learning method	lecture	204(67.1)	1.44±0.56	0.27	.900
	discussion	10(3.3)	1.34±0.27		
	Case-based learning	54(17.8)	1.40±0.45		
	Problem-based learning	31(10.2)	1.46±0.46		
	etc	5(1.6)	1.60±0.81		
Prefer to discuss and present	Good [a]	58(19.1)	1.45±0.55	3.65	.027 a,b>c†
	Average [b]	156(51.3)	1.49±0.58		
	Poor [c]	90(29.6)	1.31±0.38		
Face to Face class The degree of help understanding	Good	252(82.9)	1.41±0.53	1.36	.259
	Average	44(14.5)	1.52±0.52		
	Poor	8(2.6)	1.62±0.59		
Online lecture The degree of help understanding	Good [a]	176(57.9)	1.34±0.43	6.99	<.001 a<b,c†
	Average [b]	95(31.3)	1.52±0.60		
	Poor [c]	33(10.9)	1.65±0.69		

† Duncan test

3.2 딴짓과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강의만족도, 강의몰입 수준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는 평균 1.43±0.53점, 학습동기의 평균은 3.72±0.57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학습자신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의 평균은 2.92±0.67점, 3.58±0.56점, 2.81±0.85점으로 나타났다. 강의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96±0.79점으로 나타났으며, 강의몰입의 평균은 3.53±0.89점이었다(Table 2 참고).

Table 2. Variables in nursing students (N=304)

Variables	M±SD	Min	Max
Other behaviors	1.43±0.53	1.00	4.45
Learning motivation	3.72±0.57	2.00	5.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2.92±0.67	1.43	5.00
Self-regulation efficacy	3.58±0.56	1.60	5.00
Learning confidence	2.81±0.85	1.00	4.80
Lecture satisfaction	3.96±0.79	1.20	5.00
Lecture flow	3.53±0.89	1.00	5.00

3.3 딴짓과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흥미도(r=-17, *p*=.003), 이해도(r=-19, *p*=.001), 필요도(r=-12, *p*=.031), 학습동기(r=-12, *p*=.046), 자기조절효능감(r=-11, *p*=.040), 학습자신감(r=-14, *p*=.017), 강의만족도(r=-22, *p*<.001), 강의몰입(r=-24, *p*<.001)은 모두 딴짓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려운 과제 선호와 딴짓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참고).

3.4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N=304)

	1	2	3	4	5	6	7	8	9
1. Interest	1								
2. Understanding	.54**	1							
3. Need	.37**	.13*	1						
4. Learning motivation	.54**	.32**	.26**	1					
5. Task difficulty preference	.18**	.21**	.03	.46**	1				
6. Self-regulation efficacy	.31**	.40**	.22**	.71**	.49**	1			
7. Self confidence	.04	.16*	.01	-.04	-.08	.10	1		
8. Lecture satisfaction	.50**	.50**	.29**	.31**	.15**	.27**	-.03	1	
9. Lecture flow	.42**	.42**	.16**	.39**	.31**	.36**	-.00	.62**	1
10. Other behaviors	-.17**	-.19**	-.12*	-.12*	.01	-.11*	-.14*	-.22**	-.24**

**p<.01, *p<.05

2.02으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61~.87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5~1.6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주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9.95, p<.001). 비동시 온라인 수업 시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가장 큰 요인은 학습자신감이었으며(β= -.20), 다음으로 토론 및 발표선호정도(β= .19), 강의몰입(β= -.15), 강의만족도(β= -.15)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딴짓을 10.6% 설명하였다(Table 4 참고).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ther behaviors nursing students during online lectures (N=30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27	0.18		12.58	<.001
Learning confidence	-0.12	0.04	-.20	-3.44	<.001
lecture satisfaction	-0.10	0.05	-.15	-2.11	.036
lecture flow	-0.09	0.04	-.15	-2.12	.035
prefer to discuss & present	0.22	0.07	.19	3.35	<.001
R2=.117, Adjusted R2=.106, F=9.95, p<.001					

4. 논의

최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디지털기기와 관련된 주의집중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문제이다. 특히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등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순서대로 한 가지씩 해결하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1]. 대학생의 경우에는 동시에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세대이므로, 미디어를 통한 학습에 있어서 수업 이외의 딴짓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8]. 코로나19는 교육에도 큰 변화를 일으켜 원격수업의 범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여러 원격 수업 중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학습자가 재생하여 학습하는 비동시 온라인 수업은 가장 대중적으로 선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비동시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학습자의 의사결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있고, 즉각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가 단순히 동영상 강의를 틀어만 놓고 학습과 관련이 없는 딴짓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 동일한 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습자의 학습태도에 따라 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 달성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비동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 학습태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이에 본 연구자는 비동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딴짓 정도는 5점 만점의 평균 1.43±0.53점으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의 딴짓점수는 1.56±0.76점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이 딴짓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성인의 딴짓 정도에 대한 점수는 1.22±0.27점으로 나타나[8], 간호대학생이 성인에 비해서 딴짓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디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연구와도 일부 유사한 결과로서[22], 추후 온라인 수업의 집중정도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학습자신감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부요인의 평균은 2.92±0.67점, 3.58±0.56점, 2.81±0.85점이었고, 자기조절효능감이 하부요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연구[23]와, 방송통신대학의 간호학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은 학부 1학년 때부터 정해진 시간 동안 전공이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임상실습까지 이수하는 등 학업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성실한 태도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려운 과제의 해결에 대한 도전의식을 상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수업시간에 토론 및 발표 등에 적극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딴짓을 더 많이 한다고 나타났다. 최근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발표 및 토론 등 수업에 있어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격려되고 있는데, 오히려 학습자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여 토론이나 발표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면, 오히려 학습 집중을 저하시키고 학습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토론 및 발표 등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재자로서 수업의 참여하는 학습자간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자신감이 높을수록, 강의만족도가 높을수록, 강의에 몰입할수록 딴짓을 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영상 강의 중 흥미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을수록,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딴짓 정도가 낮게 나타났던 연구와[8], 강의만족에 따라 수업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19], 웹 기반 학습 시 몰입 수준에 따라 학습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25]와 유사한 결과이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학습자의 딴짓 정도 및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부분이 학습자의 내재적인 요인이었다. 즉, 교수자는 선행되는 내재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내재 요인을 사전에 조절하여,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딴짓을 통제하고 나아가 학업성취 및 학습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딴짓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신감, 토론 및 발표 선호정도, 강의몰입, 강의만족도가 딴짓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약 10.6%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신감이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나[26,27],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성인과 고등학생의 딴짓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만족도, 강의몰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8], 간호대학생의 학습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28,29]와는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대학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30],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삶의 방향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1]. 즉, 전공을 선택하기 앞서 각자 개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미래의 직업, 전공의 목표, 졸업 후 진로 등에 숙고의 시간을 거친다. 선행연구에서 초중고 학생의 학습자신감은 학업성취도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학습자신감은 학습자의 딴짓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 강화가 될수록 딴짓을 하지 않고 좋은 학습태도로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강의만족도가 높고 강의에 몰입할수록 딴짓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수자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강의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동시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학습자신감, 토론 및 발표 선호, 강의몰입, 강의만족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간호대학생의 딴짓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비동시 온라인 수업 시 딴짓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추후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로분석이나 구조모형 등을 통해 본 연구로 밝혀지지 않은 변수들간의 간접 효과나 매개효과와 같은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셋째,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에 있어 간호대학생의 딴짓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20). *Standard plan for systematic distance learning* [Onlin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0131.

[2] J. Y. Park. (2020). A Study of University Online Education Rapidly prompted by COVID1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60(7), 32-36.

[3] K. Y. Song, H. J Park, H. A Yeom, J. E. Lee, G. E. Joo & H. J. Kim. (2012).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New Educational Program, Introduction to Clinical Nursing, for Third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22-333. DOI : 10.7739/JKAFN.2012.19.3.322

[4] C. Jimenez, P. M. Navia-Osorio & C. V. Diaz. (2010) Stress and health in novice and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6(3),* 442-455. DOI: 10.1111/j.1365-2648.2009.05183.x

[5] M. W. Kim, J. M. Park & A. K. Han. (2011). Analysis of Curriculum of 4- year Nursing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14-423. DOI : 10.5977/JKASNE.2011.17.3.414

[6] H. D. Song & K. S Kim. (201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grative Assessment Framework for Analyzing Interaction in Asynchronous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5(3),* 19-37.

[7] J. H. Kong, M. J. Park, Y. J. Yun, H. Y. Choi, S. W. Park & K. S. Cho. (2014). Study on e-Learner's Attention improvements. *Journal of the HCI Society of Korea,* 353-356.

[8] S. Y. Kim & N. M Shin. (2019). A study on online learner's 'other behaviors' and flow: comparing adolescents with adults. *Korea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5(2),* 273-298.

[9] E. S. Park, Y. K. Woo, J. Y. Cha, Y. H. Park & J. Y. Yun. (2018). A study of interaction usability to prevent breakaway while watching E-learning. *Journal of the HCI Society of Korea,* 788-791.

[10] Y. J. You. (2011). The Influence of Cooperative Learning Style Liberal Dance Class Student`s Learning Attitude on Peer Relationship and Class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5), 71-86.

[11] M. J. Sim & H. S. Oh. (2012).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328-337.

[12] A. Jo & S. Z. Roh. (2013). The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Learning Attitude,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9(4), 849-879.

[13] S. N. Park & Y. S. Im. (2018). Utilizing Video vs Simulation Practice for Handoff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27-36. DOI : 10.4094/chnr.2018.24.1.27

[14] J. E. Cha & H. J. Kang. (2020). Effects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Combined with Online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Prepar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433-446.

[15] S. Y. Kim. (2020). A study on online learner's distraction and flow: comparing adolescents with adults groups. Master's thesis. Don Gguk University, Seoul.

[16] E. H. Chang & S. H. Park. (2017). Effects of Self-evaluation using Smartphone Recording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y in Nursing Skills, Satisfaction, and Learning Motivations : Focusing on Foley Catheteriz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1),* 118-127.

[17] A. Bandur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DOI: 10.1037/0003-066X.37.2.122

[18] A. Y. Kim & I. Y. Park.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19] E. J. Jung & J. D. Duck.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Lecture Satisfaction, Positive Self Concept, and Class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3(2), 447-465.

[20]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ing flow in work and play]. San Francisco/Washington/London.: Jossey Bass.

[21] Y. S. Song, S. H. Oh, E. M. Kim, E. Y. Na, H. S. Jung & S. R. Park. (2009]). Media User Patterns of Adolescents in a Multimedia Environment: An Assessment of Gender and Income Differenc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6(2),* 33-65.

[22] J. S. Yim, J. M. Yoon & E. J. Jo. (2014). Uses of Media across Daypart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Weekdays/Weekend.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1(2),* 144-168.

[23]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24] S. E. Kim. (2016). An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e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 594-604.

[25] B. M. Yu, S. W. Kim, S. Y. Park & H. J. Park.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Learning Flow and Internet Addiction on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1),* 1-25.

[26] K. H. Lew.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62-470.

[27] S. J. Lee, H. J. Shin & J. H. Lee. (2014). The Relationships of Academic Self-confidenc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o Academic Achievement and Internet Addicti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349-374.

[28] S. H. Park & H. N. Yoo. (2020).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before thei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12(1),* 109-116.

[29] M. Y. Moon. (2017).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Styl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4),* 665-675.

[30] M. h. Yeom. (2018). Critical Reflection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5),* 385-417.

[31] S. K. Yoon, Y. K. Han, S. H. Im & H. Y. Kim. (2015).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College and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2(2),* 87-107.

최 은 영(Eun-Young Choi) [정회원]

· 1998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2006월 8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만성질환
· E-Mail : eychoi@cnc.ac.kr

윤 지 영(Ji-Yeong Yun) [정회원]

· 2015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9년 8월 ~ 2020월 8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뇌졸중, 만성질환
· E-Mail : yunjiyeong0221@gmail.com

박 신 영(Shin-Young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보건교사, 도구개발, 적응
· E-Mail : cylove39@naver.com